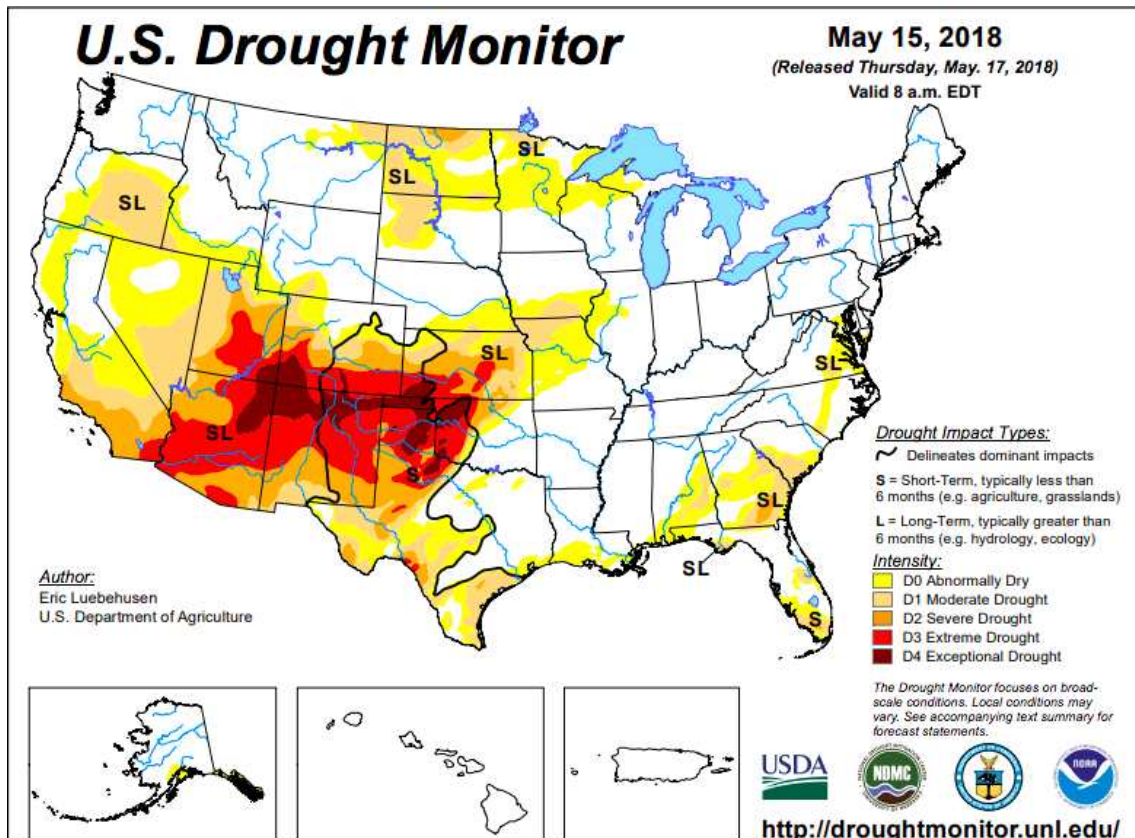


5월 2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5, No. 21)

□ 미국 기후 현황(5/13~5/19)

남서부, 태평양 연안 북부, 오대호, 걸프만 연안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나기 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중부와 대서양 연안 중부 일대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2~6인치 내외의 비가 내렸고, 비로 인해 농작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는 남동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던 가뭄을 상당부분 해소해 주었다.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서도 비가 내렸지만, 오랜 기간 동안 가뭄에 시달려 온 겨울밀 재배지의 수확 전망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는 한동안 내리던 비가 멈추고 따듯한 날씨를 보이면서 옥수수과 대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로키산맥 북부 일대에서는 비가 한두 차례 내렸고, 걸프만 연안 서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로키산맥 남부에서부터 오하이오, 대서양 연안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0°F 이상 높았다.



## □ 농업 현황 요약(5/14~5/20)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오하이오 일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8°F 이상 높았고, 중서부 일대에서도 기온이 평년보다 4°F 이상 높았다. 동부 해안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는데, 특히 대서양 연안 중부지역에서부터 플로리다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5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네브라스카, 캔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북부 등에서도 3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 세계 기후 현황(5/13~5/19)

■ 유럽: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렸다. 스칸디나비아 상공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중부와 남부 유럽 일대에서는 10~9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독일, 폴란드 남부 등 비가 내리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이번 비로 토양 수분량이 증가했고, 프랑스, 잉글랜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비가 내려 토양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 주었다.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중부와 북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6°C 정도 높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밀과 보리 등은 수확을 앞두고 있다.

■ 구소련(서부): 주요 밀 재배지역 전역에서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두 차례 비가 내렸다. 흑해 연안 지역에서는 2~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부터 러시아 남부 일대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몰도바, 벨라루스 등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카스피해 주변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6°C 정도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 동아시아: 중국 동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남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최소 3°C 이상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를 넘어서는 날들이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60일간 내린 비의 양이 평년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쯔강 일대와 북동부 평원 일대에서는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다. 북한과 남한 및 일본 등에서는 곳에 따라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 호주: 퀸즐랜드 남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고, 여름작물의 수확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뉴 사우스 웨일즈의 북부 지역에서도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면화 등의 수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남동부 일대의 맑은 날씨 덕분에 밀, 보리, 카놀라 등의 파종작업도 진행되었다.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2°C 정도 높았고, 남부와 동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2°C 낮았다.

■ 아르헨티나: Entre Rios, Buenos Aires의 일부 지역에서는 10mm가 조금 넘는 비가 내렸지만, 그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1°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20°C 중반까지 오르내렸다. 또한, 밤동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ta 등 북부 일대에서도 맑고 따뜻한 날



씨를 보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20°C 후반까지 올랐다. 반면, 북동부 해안 지역에서는 25~10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17일 기준 옥수수과 대두의 수확률은 각각 42%, 67%를 기록했다.

■ 브라질: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부터 Mato Grosso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이 지역 일대에서 지난 4월부터 이어져 왔던 가뭄도 상당부분 해소가 되었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5월 14일 기준 이모작 옥수수 재배지의 약 95%가 개화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Mato Grosso 북부에서부터 Maranhao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0~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